

월남전과 휴전

이 글은 20년 동안을 끌게 된 월남전의 개요와
그 전쟁을 어떻게 종결시켰는가에 대해,
당시에 진행되었던 휴전회담을 중심으로 그 진전과정을 고찰해 본 것이다.
이 글에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정치협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점과,
강대국들의 정치 협상에서 전쟁 당사국의 의사가
어느 정도 고려되었는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제네바협약기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프랑스는 미국의 재정 지원(1954년에 10억불)하에 바오다이 정권을 내세워 월남을 재지배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호지명이 이끄는 월맹군의 강력한 반격을 받아 1953년 후반에 하노이시와 하이퐁항이 위치하고 있는 홍하 삼각주 일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승기를 잡은 월맹은 1954년 5월 7일에 중공이 제공한 야포를 사용하여 서부 통킹에 위치한 프랑스군의 최후거점인 디엔비엔푸를 점령하고 프랑스의 인지지배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하여 1946년부터 1954년까지 8년간을 끌었던 제1차 인지전쟁은 제네바협정(1954. 7. 21)의 체결로 끝이 났다. 이 협정의 골자는, (1) 17도선에 의한 월남의 분할, (2) 그 이남지역으로부터의 월맹군 철수, (3) 2년 후인 1956년 7월에 국제감시위원회의 감시하에 전국선거의 실시로 되어 있었다.

8 현대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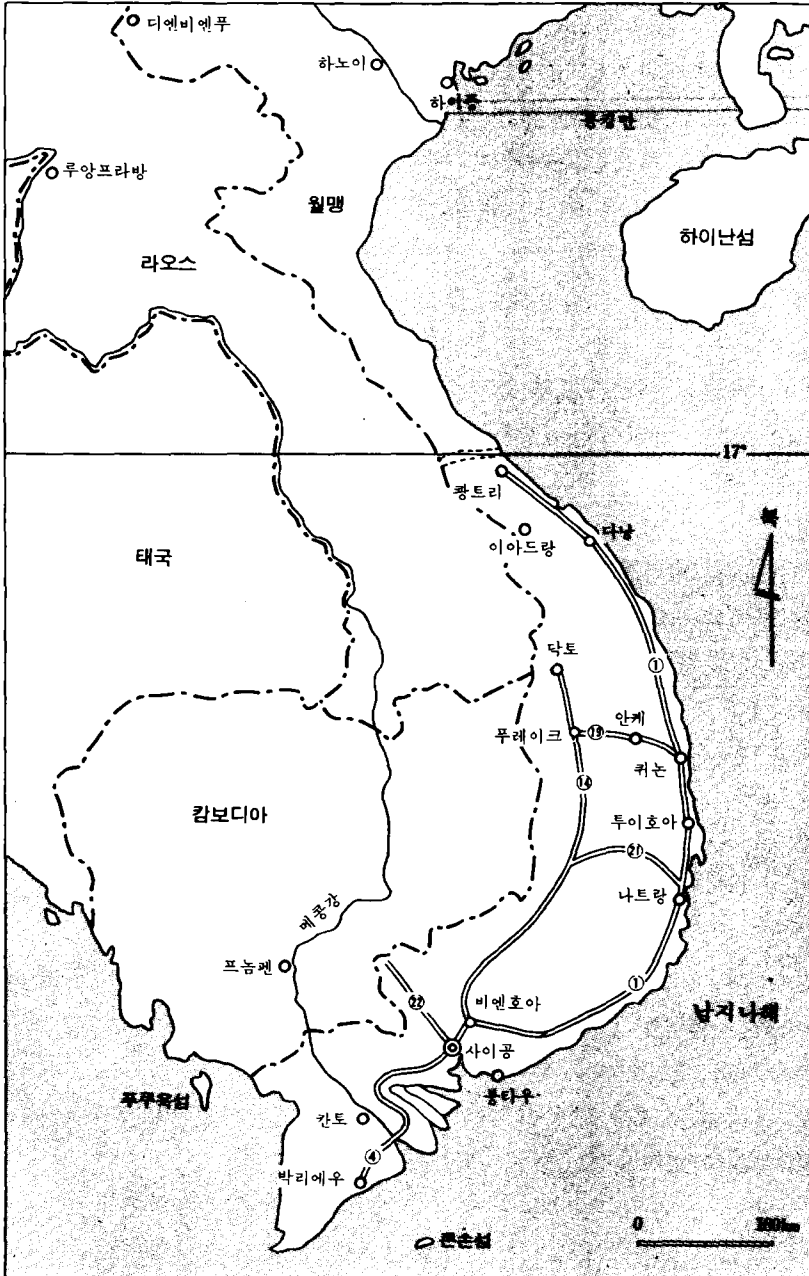
이 중 세 번째의 전국선거는 인구가 많고 통제가 잘 된 월맹이 승리(미국의 판단은 80%) 하게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미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1950. 2. 7)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인지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군사원조를 제공해 온 미국은, 이 제네바협정이 월맹의 동남아시아 지배를 공인하게 된다는 판단하에서 동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였다.

제네바협정 체결 직후, 미국은 동남아시아를 공산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SEATO를 결성(1954. 9. 8)하고 고 딘 디엠이 이끄는 사이공 정부에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1955년 초)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프랑스가 때마침 발발한 알제리아 전쟁(1954. 11. 1) 때문에 주월 프랑스군을 완전 철수(1956. 4. 28)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이때부터 미국이 프랑스의 자리를 메꾸게 되었다.

VC의 대두와 확산 미국과 함께 제네바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디엠정권은 동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전국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17도선 이남에서의 단독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바오다이를 추방하고 반공 월남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월남 대통령이 된 디엠은 집권 초기에만 공화국의 기틀을 잡아 가는 데 성공하였을 뿐 시간이 흐르면서 카톨릭의 우대, 일가 독재 등의 실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어 실각의 길로 치닫고 말았다.

한편, 월맹측은 대불전쟁의 종결로 1954년 17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때 월남에 은밀히 잔류시켜 놓은 그들의 조직(약 1만 명)에게 지령을 내려 반디엠 운동에 편승한 테러와 반란을 격화(1957년) 시켰으며, 1959년에 이르러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급로(호지명통로)를 개척하고 그 곳을 통해 보급물자를 남하시킬 수송부대까지 편성하였다. 그리고는 1959년 5월 13일에 개최된 월맹 노동당 제15회 중앙위원회에서 “사이공 정부 타도”를 결의하였고, 이때부터 테러활동이 게릴라전으로 전환되었다. 주월 미군의 최대 보급기지인 비엔호아기지가 기습

인도지나반도



(1959. 7. 8)을 받아 큰 피해를 입는가 하면, 월남 정부군 2개 중대가 매복공격(1959. 9. 26)을 받아 거의 전멸하는 등의 사태가 연일 계속되어 월남의 전반적인 정세는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신생 디엠정권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었고, 항상 중공의 개입을 우려해 온 미국(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제네바협정을 의식하여 본격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다음해(1960년) 9월, 월맹은 노동당 제3차 대회를 열어, 첫째 사회주의 혁명 수행, 둘째 월남해방 등 2대 혁명과업 수행을 결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해 연말(12. 20)에 월남 해방전선을 결성하였다. 이때부터, 그들은 1973년 초에 휴전이 성립되기 직전까지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고집하였던 월남 내에 있는 전 외국군의 무조건 철수와 사이공 정부 및 해방전선 간의 연립정부 수립을 그들의 정책기조로 들고 나왔던 것이다.

1962년, 월맹은 월남 해방전선의 중앙기구와 이 기구가 관장하게 될 군대(VN)의 조직확장에 착수하였다. 이 세력은 1963년의 25,000명에서 다음해에 60,000명 그리고 1965년에는 10만 명 선을 돌파함으로써, 미군 전투부대의 본격적인 투입 없이는 월남의 적화를 저지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VC의 증강에 대해 미국(케네디 대통령)은 제네바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월남에 주둔할 수 있는 미 고문관수 685명을 넘는 고문관과 지원부대(헬리콥터 2개 중대) 15,000명을 증파하고 주월미군 원조사령부를 설치(1962. 2. 8)하여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표시하였지만 VC의 활동은 여전히 증가해 가기만 하였다.

그 이후 월남의 상황은 1963년 11월 1일에 디엠 정권이 전복되고, 1965년 6월 12일에 구엔 반 티우 소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될 때까지, 수십회의 쿠데타가 계속되어 정세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1964년에 이르러 사이공 정부의 힘이 미치는 곳은 전국토의 34%에 불과하였고, VC 지배지역이 42%, 경합지역이 24%나 되었다.

1963년 11월 22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B. 존슨은 전임자의 제한된 파병(15,000명의 고문관)정책을 깨고, 대규모의 전투부대를 월남에 파병하게 되었다. 그는 1964년 8월에 일어난 통킹(동경)만 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에 월남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압도적인 지지(상원 88:2, 하원 416:0)를 얻었다.

그리하여, 그는 1965년 말에 18만여 명, 1966년 말에는 약 39만 명으로 주월 미군을 증강하여 월남전에 깊이 개입하게 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북폭개시와 자유우방군의 본격적인 개입 1965년 2월 7일, 중부고원의 플레이쿠에 위치한 미군기지(홀로웨이 기지와 비행장)가 VC의 박격포사격에 이은 세이파(유격대)공격을 받아 미군 20명이 전사하고 109명이 부상하였으며 20대의 항공기가 파괴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 급보는 지체없이 워싱턴으로 전달되었고, 이로부터 몇 시간이 안 되어 존슨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펜타곤은 태평양지구 사령관 샤프제독에게, 월맹내의 군사기지에 대한 보복폭격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남지나해에 떠 있는 2척의 미 항공모함(헝콥크와 코랄시호.)으로부터 발진한 45대의 함재기가 패딩 닥트 작전으로 불리는 북폭을 감행, 월맹내의 동호이 병영시설과 항만시설을 파괴하였다. 이것이 그 후 3년 동안 지속된 북폭의 효시가 되었다. 북폭이 개시되자 월맹군은 지상 침투부대의 증파로 맞섰다. 이들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2개월 후 미 해병 2개 대대가 다낭에 상륙함으로써, 월남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이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얼랜드 대장의 전투부대 증파요청을 계속 받아들여, 1965년과 1966년에 각각 20만 명의 미군을 증파하였으며 1968년(월맹의 구정공세)에 이르러서는 54만 명 수준까지 병력을 증파시켰다.

이와 같이 미국은 폭격강화와 전투부대의 증파로 월남전의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확전에 비례해, 1965년 말의 이아드랑계곡에서의 대접

전이 말해 주듯이, 전투의 회수와 치열도만 증가하였을 뿐 전쟁타결의 전망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서, 미국은 한편으로는 계속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월맹을 협상타자로 끌어내어 월남전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로 정책전환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1965년 초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은 공산측이 월남침략을 중지하면 월남전을 정치적으로 해결(철군의 의미)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월맹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4개월 후인 4월 7일 미국 존슨 대통령은 볼티모어 연설에서 월남전 해결을 위한 무조건 협상을 제의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 이때에는 월맹이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다. 다음날 월맹의 팜 반 동 수상이 협상의 4개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1) 미군의 전면철수 (2) 외국과의 군사동맹 폐기 (3) 월남 국내문제는 민족해방전선(VC)의 계획에 따라 해결 (4) 월남문제는 외국의 간섭 없이 양측 월남인민 스스로에 의해 해결하자는 것이었으며,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수단인 또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적화통일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호지명이 자유 우방군의 월남침전을 제국주의자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월남전의 해결은 오로지 민족해방전선의 활동에 의해서만 달성된다고 한 주장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미 국무성은 즉각 월맹이 제시한 4개 조건은 수락할 수 없는 것임을 밝혔다.

이리하여, 월맹이 그들의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반면, 월남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자유우방국들도 이를 저지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은 다른 대안이 없이 확전으로만 치닫게 되었다. 물론 이 기간 중에 평화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5년에 UN사무총장 우탄트를 비롯한 여러 계통에서 쌍방간의 협상을 종용하였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의 북폭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월맹은 1967년 초(1. 28) 서방기자와의 외상회견에서, '미국이 북폭과

월맹에 대한 적대행위를 정지한다면 월맹과의 대화가 가능하다. 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북쪽의 중지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월맹이 지상전 축소의 징후를 보여주지 않는 한 북쪽을 중지할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1967년 말에 미국은 두 번에 걸쳐 월맹에게 협상을 제의하였으나, 이때에는 월맹측이 이를 거절하고 나왔다. 이때의 제의는 11월 11일 존슨 대통령이 제의한 중립국 함상에서의 회담 개최안과, 12월 29일 역시 존슨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평화회담에 VC 참가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 5개항의 평화안이었다. 월맹은 미국이 이와 같은 새로운 안을 제의할 때마다 미국으로서는 항복조건이나 다름없는 이른바 그들의 4개 협상조건을 먼저 수락 하라고 고집할 뿐이었다.

파리 평화회담 1968년 1월 30일, 미국의 대월정책이 확전으로부터 축전으로 급선회하게 되는 계기가 된 월맹군의 구정공세가 개시되었다. 이 공격에서 VC는 100개 이상의 주요 도시와 군사기지를 공격하여 그들의 전투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승리를 쟁취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였다. 그래서, 존슨 대통령은 웨스트모얼랜드 대장이 요청한 206,000명의 추가 병력 파병을 거부하고, 3월 31일을 기해 일방적으로 19도선 이북에 대한 북쪽을 정지하도록 명령한 후, 자신의 차기 대통령 출마까지 포기하면서 월맹에게 평화협상을 즉각 개시하자고 제의하였다. 동시에 영국과 소련에게 대해서도 협상 개최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월맹은 미국내의 반전여론을 고조시키고 월남내에 대규모 민중봉기를 야기시켜 월남정부를 전복시키려 하였던 구정공세에서, 전자만 성공하였을 뿐 후자는 일어나지도 일으키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자유우방군의 반격을 받아 부대재정비 기간을 갖지 않고서는 더 이상 전투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전력이 약화되었다. 월맹은 1968년 4월 3일 하노이 방송을 통해, “미국의 월맹에 대한 폭격과 그밖에

전투행위의 무조건 중지를 토의하기 위하여 월맹측의 협상 대표를 임명할 용의가 있다.”라고 첫 협상의사를 밝혔다. 그 후 회담장소를 선정하는 데 1개월 이상을 지연시킨 다음, 5월 13일 파리의 국제회의 센터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미·월맹 2자 간에 파리 평화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때부터 자유|우방군의 작전은 승리보다는 적을 회담탁자에 머물게 하고 회담을 진행시키기 위한 일종의 압력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회담은 처음부터 의견대립을 보여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미국측 대표 해리만의 주장은, “월맹군이 월남 침투를 중지하고 철수하는 동시에, 미국이 단행한 부분적인 단폭조치에 상응하는 자제를 보이면 미국도 전면단폭에 이어 전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반면, 월맹 대표 구엔 티가 내건 주장은, “회담의 목적대로 미군의 전면북폭 중지와 기타 침략행위의 중지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어떠한 실질적인 토의에도 응하려 하지 않았다. 회담은 장기화되었으며, 첫 5개월 동안 미국은 계속 본질문제에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월맹은 한국전쟁의 협상과정에서 배운 교훈인 “협상은 싸우면서 해야 유리하다.”는 이론대로 사이공에 대해 로켓포격을 집중하는 등 제2·제3의 구정공세를 획책하고 나섰다. 이와 같이 워싱턴과 하노이 간에 말싸움으로만 번진 이 파리회담은 이에 대한 새로운 정세평가나 새로운 돌파구의 마련 없이는 회담이 공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일 계속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그의 임기내에 월남전을 종결짓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존슨 미국 대통령은 이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시로써 1968년 10월 31일 그가 내린 두 번째의 일방적인 조치인 북폭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미·월맹간의 파리회담은 다소나마 진전을 보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1969년 1월 25일에는 파리 회담이 사이공 정부대표와 VC 대표가 추가로 참가하는 4자회담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되기에는 이 무렵 실시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

과가 크게 작용하였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미국민은 존슨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려는 험프리 후보보다는 월남전의 조기해결을 공약한 닉슨 후보를 선택했고, 새로 미국 대통령에 취임(1969. 1. 20)한 닉슨은 월남전의 해결 방안으로 (1) 상호철군, (2) 월남자결의 2가지 조건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때부터 미국·월남측과 월맹·VC 측의 쌍방간에 본질문제에 대한 토의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입장이나 주장은 너무나 달랐다.

1969년 4월 7일에 월남정부는 6개항으로 된 평화안을, 한 달 후인 5월 8일에 해방전선(VC)이 10개항으로 된 평화안을, 그리고 5월 14일에 미국이 8개항으로 된 평화안을 각각 제의하였다. 이처럼 각각이 주장하는 평화안의 항목은 많았지만, 그 후 2개월 동안의 토의 끝에 밝혀진 문제점의 본질은 2개로 압축된 것이었다. 그 하나는 총선거였다. 자유우방국이 지원하는 사이공 정부의 주장은 그들의 주관하에 선거가 실시되어야 하며, VC는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와 반면에 월맹의 지원을 받는 VC의 주장은 사이공 정부, VC 및 기타 중립파까지 포함한 선거관리를 위한 임시연립정부에 의해 선거가 실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의 쟁점은 월남 내의 외국군 철수문제였다. 공산측의 주장은 미군을 위시한 자유우방군의 무조건 전면철수였고, 자유진영 측의 주장은 월맹도 미군 및 자유우방군의 철수와 상응해서 그들의 군대를 17도선 이북으로 북귀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서로 상대방에게 항복이나 다름없는 협상조건을 수락하기를 강요함으로써 회담은 완전히 교착되고 말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세 번째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69년 6월 8일, 닉슨 대통령은 미드웨이도에서 월남 티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주월 미군 중 25,000명을 1969년 8월까지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때 닉슨 대통령은 이 철군은 티우 대통령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밝히고, 이어 주월 미군의

철수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즉, (1) 월남군이 자력으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증강되었을 때(월남화 계획의 진척), (2) 파괴회담에 진전이 있을 때, (3) 월맹의 상응조치로 전투가 축소될 때는 더욱 병력을 추가 철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월맹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즈음 월남전의 조속한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자, 또다시 미국내에 반전여론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닉슨 대통령은 월맹의 진심을 타진하기 위해 가진 키신저의 대월맹 비밀접촉(1968. 8. 4)에서 청신호를 얻어내자, 월남전의 “명예로운 조기 종결”을 결심하게 되었다.

1969년 9월 3일 호지명의 사망으로 3일간의 휴전(월맹 요청)이 실시된 호기를 이용하여, 같은 달 16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2월 15일까지 주월 미군 35,000명을 추가로 철군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철군조치에도 불구하고 10월 15일, 워싱턴에는 25만의 인파가 월남 반전집회(베트남 모라트리움)에 모이는 등 반전운동이 일어났고, 11월 15일의 워싱턴 집회에서는 성조기를 내리고 VC기를 게양하는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이렇게 되자, 닉슨 대통령은 11월 3일 전국 TV망을 통해 그의 ‘월남화 정책’을 지켜봐 주기를 호소하는 등, 그 유명한 ‘소리없는 대중(Silent Majority)의 지지 획득’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겨우 비등하는 반전여론을 무마하는 데 성공하였다. 티우 월남 대통령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제의한 “월남화 계획”에 동의함으로써, 주월 미군을 70년대 말까지 월남군으로 대체하고 그 후 2~3년내에 전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려는 닉슨 독트린의 실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월남화 계획을 성공시키면서 미군을 안전하게 철군시키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월남내에 월맹군과 VC의 증강을 저지해야만 하였다. 적의 보급로인 호지명통로의 차단과 이 통로와 연해 있는 그들의 기지(성역)를 파괴하는 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되었다. 때마침 캄보디아에 쿠데타(1970. 3. 18)가 일어나 론놀 장군이 집권하는 반공정부가

들어서게 된 기회를 이용, 미국의 대통령은 1970년 4월 30일 캄보디아로의 미군진격을 명령하였다. 이로 인해 파리평화회담의 월맹측의 협상태도가 경화되고, 이때부터 대공협상에서 늘 나타나는 현상인 일면전투 일면대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미·월 연합군이 캄보디아 진공작전을 6월 말로 끝내고 철수한 다음에야 그간 정체에 빠졌던 파리회담이 재개되었지만, 1970년 7월 2일 룩저의 후임으로 미국 수석대표로 부임한 부루스가 2년 후에 그간의 회담경위를 회고하면서 말하였듯이, 공식적 파리회담에서 중대한 문제를 다루었다고 할 만한 대화가 전연 없었던 그러한 세월이 흘러갔을 뿐이었다. 미국과 월맹간의 공식 협상경로인 파리 평화회담이 이처럼 교착된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 그 첫째가 쌍방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던 각각의 상이한 주장이었다. 공산측은 미군을 비롯한 자유우방군의 무조건 전면철수, 그리고 티우를 제외한 월남정부와 VC대표로 구성하는 연립정부 수립을 주장하였고, 미국은 즉각적인 포로석방과 월남으로부터의 상호철군을 주장하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원인은 1969년 8월 4일에 미국의 대통령 특별보좌관 키신저와 월맹의 특별고문 레독토 간에 첫 접촉을 가진 바 있는 비밀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비밀회담은 닉슨이 1968년 말에 실시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키신저의 권고를 받아들여 월맹과의 비밀 접촉을 추진하여 이룩된 것이었다. 1968년 12월 중순에, 닉슨은 평소 월맹과의 접촉이 있는 프랑스인 산토니를 통해 월맹에게 화평의 뜻을 전했고, 11일 후에 월맹으로부터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그 후, 1969년 5월 14일 닉슨이 제의한 8개항으로 된 평화안과 7월 15일에 닉슨이 호지명에게 보낸 화해 서한 등의 일련된 후속조치로, 1969년 8월 4일 파리의 세인트니 저택에서 미국의 키신저와 월맹의 구엔 티 간에 첫 비밀회담이 열렸다. 이로써, 월남전의 휴전협상은 공식 및 비공식의 이원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당연한 추세로 파리평화

회담(공식)은 의례적인 회담으로 격하되어 단지 교섭 쌍방간에 각자의 협상태도를 밝히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

비밀협상의 통로가 개통된 지 한 달 만인 9월 3일 호지명이 사망하였다. 그의 사후 집단지도체제에 들어간 월맹정부는 강경입장으로 돌변하였고, 휴전회담은 다만 그들이 공세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획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더우기 해를 넘겨 1970년 봄에 실시된 미·월 연합군의 캄보디아 진공으로 키신저와 레둡토 간의 비밀회담도 몇 번의 접촉이 있었을 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비밀회담마저 교착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키신저는 1970년 9월 상호철군 대신 일국내에 두 체제를 인정하는 새로운 안인 현지휴전(월남내에 VC 잔류인정) 안을 제시하였다. 후일 월남 패망의 원인이 되고 마는 이러한 중대한 양보에 대해, 월맹은 티우를 제거하고 민 장군이 이끄는 사이공 정부와 VC와의 연립정부를 세우자고 하는, 미국측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종래의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또다시 공식 비공식 회담이 모두 교착상태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때에(1969년 11월) 미국과 중공 사이에 개시된 대화가 결실을 맺어 월남전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미·중공간에 화해의 징조가 나타났다. 1971년 4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중공팀의 초청으로 미국팀이 중공을 방문하여 주은래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은, 이른바 ‘핑퐁외교’가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동·서 양진영간에 해빙기운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해빙정책의 일환으로 월남 티우 대통령을 회유, 설득시켜 두 가지 양보를 얻어내어 이를 공식통로(파리평화회담)를 거쳐 월맹측에게 새로운 안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즉, 미군 및 자유우방군은 휴전협정 후 6개월 이내에 철수할 것이며, 티우는 총선거 1개월 전에 사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월맹측은 즉각(1971. 5. 3)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3개월 동안 키신저와 레둡토 간에 가졌던 5회의 비밀접촉에서도

계속, 티우 경질과 월남화 계획을 중지하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비밀회담에서 키신저가 실질적인 신제안을 하면 레독토는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는, 공식회담에서 미국이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가 합의하는 데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가 하고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1971년 8월 16일에 미국측은 합의 후 9개월 이내에 미군 및 자유우방군의 전면 철수안을 제안해 보았지만, 9월 13일에 월맹은 예상대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리하여 1971년 가을에야 미국은 월맹이 월남을 합병하려고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공산측의 진의를 알아내는 데 3년 이상이 걸렸다. 월맹의 속셈은 미국이 최악의 경우에는 허둥대며 월남에서 손을 떼고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잘돼 봐야 그들은 미군포로의 석방에 만족하고 월맹의 사이공 정권인수를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그 다음 해(1972년) 2월 27일 닉슨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주은래에게 미국의 본심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을 때 그 내용이 밝혀졌다. 그 내용은 미국의 8개 항, 5개 항 또는 13개 항 등의 평화안을 제안하였지만, '우리의 진짜 조건을 솔직히 말하면 월맹과의 협상에서 정전과 포로석방 문제만 타결되면 미군은 6개월 이내에 철수하겠다.'라는 것이었다.

월맹의 진의를 파악한 미국은 1971년 말(12. 26~30)에, 1968년 11월에 단폭한 이후로 최대 규모의 북폭을 20도선 이남지역에 실시하여 월맹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그리고, 1972년 신정휴전 무렵 월남에 대한 월맹의 대공세가 임박하였다는 여러 가지의 징후가 포착된 가운데, 파리에서는 1972년 3월 20일 미국 대표가 중단된 평화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의하였지만, 월맹측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3월 말일에 전정규군을 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공세를 감행하였다. 이로써 쌍방간의 모든 협상이 중단되었다.

월맹의 공세가 개시되기 직전에 주월 미군의 규모는 95,000명 선으로 감축되었으며, 이들 중 해·공군을 제외한 지상군의 잔류 전투부대

(8개 대대)는 7월 말까지 모두 월남을 떠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 밖에 파월 자유우방군으로서는 한국군 2개 사단(4만 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 호주, 뉴질랜드 및 태국군은 이미 철군을 완료하고 있었다. 월남군은 월남화 계획에 따라 병력은 증강목표에 달했지만, 장비와 훈련은 그때까지도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월맹정규군의 대공세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상전투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주월 미군은 해·공군을 총동원하여 적의 공격부대를 강타하는 한편, 월맹의 심장부인 하노이와 하이퐁을 폭격하였다.

월맹군은 선제공격의 이를 살려 DMZ, 중부고원 및 사이공 북방의 세곳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다. 다급해진 미국은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5월 2일 키신저로 하여금 레독토를 만나 “다만 귀측이 휴전에 동의하고 미군포로만 석방하면 미군 및 자유우방군은 6개월 이내에 완전철군할 것이다.”라는 안을 제시하였다. 승세를 등에 업은 레독토는 물론 이를 거부하고 미국에게 연립정부수립안을 수락하라고 고집하였다. 미국은 이미 재개한 북폭을 더욱 강화하였지만 지상전에서의 열세를 만회하지 못하여, 5월 1일 최북단 성도 캄트리가 함락되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조치인 월맹의 전 해안의 봉쇄를 명령하였다. 5월 8일 하이퐁항을 비롯한 월맹의 모든 항구에 기뢰가 부설되었다. 그리고, 미공군의 B-52 중폭격기와 4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함재기에 의한, 월맹내의 철도, 유류저장소 및 발전소 등의 중요군사 시설에 대한 초토화 폭격의 실시와 월남군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된 근접항공지원으로 5월 중순에는 전선상황이 안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6월 28일 월남군은 반격으로 전환하여 9월 15일에는 잃었던 캄트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월맹은 이때의 공세로 월남내에 현지휴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거점들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월맹은 정규군에 의한 전면 침공작전이 뜻대로 안 되자, 협상탁자에서의 정치전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방향으로 정책

을 전환하였다. 이때부터 월맹은 유연성을 보여 8월에는 3회에 걸쳐 접촉하였던 키신저와 레독토 간의 비밀회담에서, 처음으로 티우정권 불인정태도에서 후퇴하여 두 개의 정부(사이공정부와 VC)와 제3정치세력(중도파)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등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때부터 쌍방간에 협정 초안이 될 세부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9월 11일에 그간의 합의사항을 정리하여 문서화하였다. 여기에는 공산측이 그 동안 그렇게도 끈질기게 고집하여 온 ‘티우, 퇴진’ 주장을 철회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이 월남을 버렸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명예로운 철군’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10월의 극적전개 월남전의 정전을 규정짓는 평화안에 쌍방 대표가 완전 합의하고 서명일정까지 확정지은 것이 10월이었으며, 그 첫 고비가 10월 8일이었다. 닉슨도 그의 회고록에서 이날의 회의를 ‘협상 타결의 가능 여부가 밝혀질 중대한 회의’라고 말하였다. 1972년 10월 8일 키신저는 레독토와 만나기 위해 19번째로 대서양을 횡단하였다. 이날 레독토는 비밀회담의 전기가 될 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주장하여 온 정치 및 군사문제를 한데 묶어 처리하자는 일괄타결안을 철회하고, 그 대신 정전, 미군 및 자유우방군의 철군, 포로석방 등의 군사문제 처리를 제1단계로 하며, 월남 내부의 정치문제는 제2단계로서 월남의 2개 당사자(사이공정부와 VC)가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2단계 해결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미국이 그때까지 주장한 우선 휴전과 포로석방 문제를 해결한 다음 월남의 정치문제는 월남국민이 자결하자는 군사 및 정치문제 분리방식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이 돌파구가 되어,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키신저와 레독토는 마라톤 회담을 진행시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된 9개항의 협정초안을 작성하였다.

(1) 미국은 월남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 (2) 휴전은 서명 24시간 후에 발효하며, 모든 미군 및 자유우방군은 60일 이내에

철군한다. (3) 모든 전쟁포로들은 협정 조인 60일 이내에 석방한다. (4) 월남인의 자결권(총선거) 행사를 위해 3자가 동등한 비율로 구성하는 ‘국민화해 및 화합회의’라는 행정기구를 발족시킨다. (5) 남북월남의 재통일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룩한다. (6) 4자(월남, 월맹, VC 및 미국) 및 2자(월남, 월맹) 공동군사위원회 및 국제휴전감시위원회를 설치한다. (7) 평화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협정조인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8) 모든 당사자들은 제네바협정에 따라 라오스와 크메르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 (9) 미국은 월맹 및 전 인지 지역의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2가지 세부문제 즉, 월맹이 요구하는 미군포로 석방에 상응하는 VC(월남정부로서는 포로가 아닌 반란폭도)의 석방과 미국의 주장인 쌍방의 군사장비 교체의 제한(월남내에 있는 월맹군 또는 VC에 대한 무기공급은 사이공 정부의 존립을 위협)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었다. 이들 문제로 10월 17일에 재개된 키신저와 레독토 간의 비밀 회담에서 또다시 월맹이 양보함으로써, 미국의 주장대로 월남정부가 억류중인 VC는 석방하지 않으며, 무기는 당시 보유장비를 1:1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이렇듯 계속 월맹이 양보를 거듭하면서 협정체결을 서두른 배경으로는, 첫째는 미국의 대중공, 대소련 해빙정책으로 월맹의 끝없는 전쟁 수행에 제동이 걸렸고, 둘째는 전쟁의 계속보다는 국내건설을 먼저 하자는 월맹의 팸반둥 수상과 트랑치엔 국회상임위원회 의장을 주축으로 한 비둘기파가, 보 구옌 지압 국방상을 대표로 한 매파의 1972년 춘계공세의 실패를 계기로 실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고, 셋째는 북쪽을 재개하고 월맹 해안을 기뢰로 봉쇄하는 등 강경 입장을 견지해 온 닉슨이 11월 7일의 대통령선거에서 재선될 것이 확실시되며, 넷째는 협정으로 미군의 지원만 끊으면 사이공 정권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여건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협정초안 작성을 완료한 두 대표는 협정안 서명을 위한 일정표를 작성하였다. 한번의 수정을 거쳐 확정된 일정은 10월 23일에 북쪽과 기뢰부설을 중지하고,

10월 24일에는 하노이에서 키신저와 레독토가 초안에 서명하여, 10월 31일 파리에서 4 당사자 대표(각국 외상)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때에 남은 문제는 월남정부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월남을 무시한 미·월맹 간의 협상에 강력히 저항하였던 티우 월남 대통령은, 10월 18일부터 4일간 사이공을 방문하여 협정내용을 설명한 키신저에게, (1) DMZ의 존속 보장과 월맹군의 철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 국민 화해 화합회의가 월맹이 주장해 온 3 파(월남정부, VC 및 중도파) 연립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협정초안에 동의하기를 거부하였다. 미국은 원조중단 또는 단독서명 등을 언급하면서 티우에게 최대의 압력을 가하였으나, 이미 서명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월남정부와의 협의 관계로 서명 일정을 연기하자는 통지를 받은 월맹의 팜반둥 수상은 10월 26일 휴전협정 초안을 공표하는 동시에, 10월 31일에 조인하도록 비밀회의에서 합의하였던 일정표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키신저에게 약속한 대로 하노이를 방문해서 협정에 가조인할 것을 주장하였다.

바로 같은 날, 키신저는 기자회견을 갖고 회견 벽두에 발표한 성명에서 “평화는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월남전 협정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지만, 현실은 미국측이 티우 월남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월남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계속할 것을 주장)을 무마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어 도저히 조인일정을 지킬 수가 없었다. 이에 미국은 답변 성격의 서한을 월맹에 보내,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의 때문에 10월 31일에 협정을 성립시키지 못한 데 대해 월맹이 실망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하고, 11월 1일에 다시 한 번 최종 회담을 갖고 11월 20일에 가조인하자는 새로운 일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최종회담에서 합의하게 되면 여하한 수정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월맹에 대한 폭격도 전면적으로 중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중공과 소련에 각서를 보내,

월맹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협정의 마무리 작업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종타협 : 1972년 11월 7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하여 대통령으로 재당선된 닉슨의 최우선 과제는 월남전의 종결이었다. 닉슨은 티우 대통령과 가장 친분이 두터운 헤이그 특사를 사이공으로 급파(11. 9)하여, 티우 대통령에게 그가 계속 반대 입장만을 고집할 경우 미 의회가 월남전 전비지출 중지안을 결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통보하였다. 동시에, 월맹에 대해서는 협정초안에 쌍방이 처음 합의한 이래(10. 13부터) 점차로 완화해 오던 북폭을 재개하여 협상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 북폭의 재개는 즉각 효과를 발휘해 북폭 재개 2일 후인 11월 14일에 월맹측은 파리에서 비밀회담을 열자고 제의하였다.

쌍방간의 실제 회담은 1주일이 늦어진 11월 20일에 열렸다. 이날 키신저는 레독토와 5시간 이상을 회담하는 자리에서, 월남 정부가 제기한 60여 개에 달하는 수정사항을 제안하였다. 수정사항의 대부분은 자구 수정과 같은 사소한 것이었으며, 수정안의 핵심사항은 '월맹군의 월남으로부터의 철수'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회담장에 나온 레독토는 갑자기 태도를 경화시켜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8일 이전의 입장으로 후퇴하였으며, 11월 23일에는 다시 티우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월 25일 회담이 난항만을 거듭하게 되자 쌍방 대표는 수일간(12월 4일까지) 회담을 중단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막상 12월 4일에 쌍방대표가 다시 만나 9일 동안을 회담하였으나, 레독토는 키신저가 제안하였던 수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앞서의 회담에서 합의한 수정안까지 철회한 다음,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사태는 키신저가 닉슨 대통령에게 보낸 전보에서, "회담의 결렬은 거의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월맹의 의도는 미·월남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든가 또는 미국내에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국론의 혼란상태를 일으켜 ‘미국의 전쟁의지’를 꺾어 승리를 쟁취하려는 데 있었다. 결국 12월 13일로 회담은 아무런 진전 없이 중단되고 말았다. 월맹측은 한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또 국민화해 및 화합회의를 그들이 갖고 있는 월남어 문서에는 ‘연립정부’로 표기하는 등 비밀회담을 단폭기간의 연장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다음날(12월 14일), “3일 후에 하이퐁항에 기뢰를 재투하하는 동시에 하노이와 하이퐁 일대에 있는 모든 군사목표를 철저히 파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평화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키신저의 10월 26일 성명) 월남전에 대한 낙관론이 협상결과와 북폭재개라는 불행한 사태로 돌변한 것이다. 12월 17일(일요일) 새벽에 미군은 명령대로 하이퐁항에 기뢰를 투하하고, 뒤이어 24시간 이내에 129대의 B-52 중폭격기가 그 후 12일간 계속될 대규모 북폭의 첫 임무를 띠고 출격하게 되었다.

한편, 대통령은 북폭재개와 동시에 월맹에게 미국은 12월 26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협상을 재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통보(12. 18)하였다. 그리고는 헤이그 특사를 사이공으로 보내(12. 19) 최후통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티우 월남 대통령을 설득하였다. 미국의 원조중단 위협에 직면한 티우 대통령은 협정초안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지원 계속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협정에 동의하기로 결심하였다.

월맹에 대한 초토화 융단폭격은 성탄절 하루만 중단되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재개되었다. 이 북폭의 강도는, 당시 뉴욕타임즈지가 표현했듯이, 월맹이 석기시대로 되돌아갈지도 모를 맹폭이었다. 월맹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미공군의 파괴력에 굴복,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1973년 1월 18일에 파리에서 비밀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의하였다. 미국 행정부는 월남전비 지출을 제한하려는 의회 개원에 앞서 월남전을 종결짓기 위해, 이를 앞당겨 1973년 1월 2일에 실무자 접촉을

개시하고 1월 8일에 쌍방의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를 재개하자는 수정안을 제의하였다.

이 미국의 수정제의를 월맹이 수락하자, 미국은 다음날 북폭을 북위 20도선 이남으로 제한하였으며 미·월맹간의 협상극도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후, 회담은 급진전을 보여 1월 12일까지 협정안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그 다음날에 양측 대표는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발표하였고, 1월 15일을 기해 미국 해·공군의 대월맹 해안 봉쇄와 폭격이 전면 중지되었다. 이는 1972년 중순 미 지상군의 완전철수와 연계해서 볼 때, 미군의 월남에서의 모든 군사활동 중지를 뜻하는 것이었다.

월맹과의 협상에서 완전합의에 도달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월남과의 공동조인을 위해 다시 한 번 헤이그 특사에게 친서를 휴대시켜 사이공으로 특파(1. 16)하였다. 닉슨의 친서는, 1월 23일에 쌍방협상 대표가 서명(가조인)하고 1월 27일에 4자(미, 월맹, 월남 및 VC)가 월남 시간으로 28일 08:00에 발효되는 휴전협정에 정식 조인하게 된 협상결과를 알리면서, 미국의 계속적인 대월남 경제 및 군사원조를 보증하는 것이었다. 결국 월남의 티우 대통령도 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헤이그 특사는 서울(1월 21일)과 태국을 방문하여 협정내용을 설명하여 양국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1973년 1월 23일 12:30에 파리에서 키신저와 레둡토 간에 협정서명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협상 개시 4년 11일 만인 1973년 1월 27일 미·월남·월맹·VC(임시혁명정부)를 대표한 외상들이 파리 국제회의센터에 모여 아무런 연설이나 악수의 교환 없이 무거운 침묵 속에, 전문 9장 23조로 된 월남에서의 종전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 그리고 4개의 부속의정서에 정식으로 조인함으로써, 28일 08:00(한국시간 09:00) 월남전은 종식되었다.